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정준화(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2015. 12. 31.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5. 6. 1.
초고 작성기간	2015. 10. 12. ~ 2015. 12. 4.
초안 검토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 실무위원: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준, 이만우, 유의정, 김유향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박상현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2. 요청일: 2015. 12. 8. 3. 답변일: 2015. 12. 11.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5년 12월 17일(목) 15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문병철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임동춘 경제산업조사실장 직무대리

요 약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균등한 보육을 받고, 지역 혁신기관들의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성공 경험을 창업 생태계에 활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보육 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국정기조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맞물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산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센터의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의 출범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센터가 안정되기도 전에 조금하게 성과를 점검하여 그 기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이후 수행된 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센터들이 지역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의 창업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센터들이 법·제도·역량·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 실태조사가 제시하는 대응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같은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정비하여 각 센터에 업무를 부과할 때 유관기관들이 각각 분담해야 할 임무와 관련 예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센터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중앙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파견 인력 중심 구조에서 채용 인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 재원을 다변화 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지선정 기준을 센터의 상황별로 다변화시키고,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에 따라 시설·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센터의 입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의 획일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창조경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센터별 차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한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해당 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낡은 법·제도적 규제가 창조경제의 새로운 융·복합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창조와 혁신 상품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기존 납품 실적에 있어야 시장 진출 할 수 있는 국내 납품·조달 체계에서는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신상품의 시장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신상품의 판로 개척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동일한 정량 지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추진한다면 각 센터가 평가를 의식하여 실적 쌓기용 활동에만 주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창조경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각 센터별 사업 성숙도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조사분석 체계 / 4

- 1. 조사 방법론 4
- 2. 조사 대상 및 일정 8

III.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9

- 1. 개념 및 설립 경과 9
- 2. 운영 기반 14
 - 가. 근거 법률 14
 - 나. 의사결정 거버넌스 17
- 3. 투입 자원 20
 - 가. 조직 20
 - 나. 인력 21
 - 다. 예산 및 펀드 22
 - 라. 공간·물리적 인프라 24
 - 마. 전담 대기업 25
 - 바. 지역 유관기관 27
- 4. 주요 기능 29
 - 가. 창업 허브 29

나. 지역 혁신 거점	31
다. 협력성장 엔진	32

IV.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 34

1. 운영의 성과	34
가. 주요 성과	34
나. 성과 사례	37
2. 주요 문제점	39
가. 내부 기반의 문제점	39
나. 운영상 문제점	45
다. 법·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47

V. 향후 과제 / 50

1. 운영 기반 안정화	50
2. 운영 합리화	55
3.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	56

VI. 결론 / 59

참고문헌

부록

1.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65
2.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재지 및 주요 시설	74

표 차례

[표 1]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태조사 항목	5
[표 2] 현장방문 대상 기관 및 일정	8
[표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연혁	15
[표 4]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주요 의사결정 거버넌스 현황	17
[표 5]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펀드(투자·융자) 조성 계획(예시)	24
[표 6]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대기업 연계 근거	25
[표 7] 창업 지원 관련 지역 유관기관	27
[표 8] 창업 허브를 구성하는 주요 기능	29
[표 9] 지역 혁신 거점을 위한 주요 연계 기능	31
[표 10] 전담 대기업의 역할 유형 예시	33
[표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 현황(2015. 7. 17 기준)	34
[표 12]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운영 성과	35

그림 차례

[그림 1] 행정서비스 실태조사의 대상과 자료 형태	4
[그림 2]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념도	9
[그림 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비전·목표·기능	10
[그림 4]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담 대기업 현황	13
[그림 5]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버넌스 구성도	19
[그림 6] 일반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도	21
[그림 7] 창업 지원 단계별 유관기관 현황	28
[그림 8]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1일 평균 운영 실적	35

I. 서론

- 정부는 경기 침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혁신 역량을 연계·결집시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있음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의미함¹⁾
- 그러나 창조경제 전략이 만들어지던 2013년 당시에는 대부분의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창업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협력이 미흡해서 창조경제 구상을 일자리 창출로 현실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
- D캠프, 마루180, 스파크랩, D2스타트업 팩토리와 같은 민간 주도의 창업보육 기관들²⁾은 창업지원 역량이 높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전국의 창업 희망자와 중소·벤처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움
-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이 설치·운영·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기업주치의센터, 테크노파크, IP 창조 Zone, 창업아카데미, 시제품제작터, 비즈니스지원단 등은 담당 영역별로 창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는 중심·중계기관(hub)이 없어서 창업 희

1)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2013. 6. 4.
 2) 디캠프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함. 마루180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가 대상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함. 스파크랩은 대표적인 민간 엑셀러레이터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함. D2스타트업 팩토리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기술분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함

망자나 중소·벤처기업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을 각각 방문해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음
 - 전담 대기업과 1:1로 매칭된 형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전남, 제주, 세종, 울산, 서울 순서로 출범되었으며, 2015년 7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센터 체제가 마무리되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담 대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이라는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고, 대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 센터들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부족함
 - 현재까지 센터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언론의 보도³⁾를 근거로 센터 개소 자체를 지나치게 정치적 소산물로 해

3) 채상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시행정’ 표본되나」, 『이데일리』, 2015. 8. 6일자;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지역 발전 기대 속 두 달 넘도록 입주업체 ‘0’인 곳도」, 『중앙일보』,

석하거나, 센터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 유관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그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센터가 향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문제점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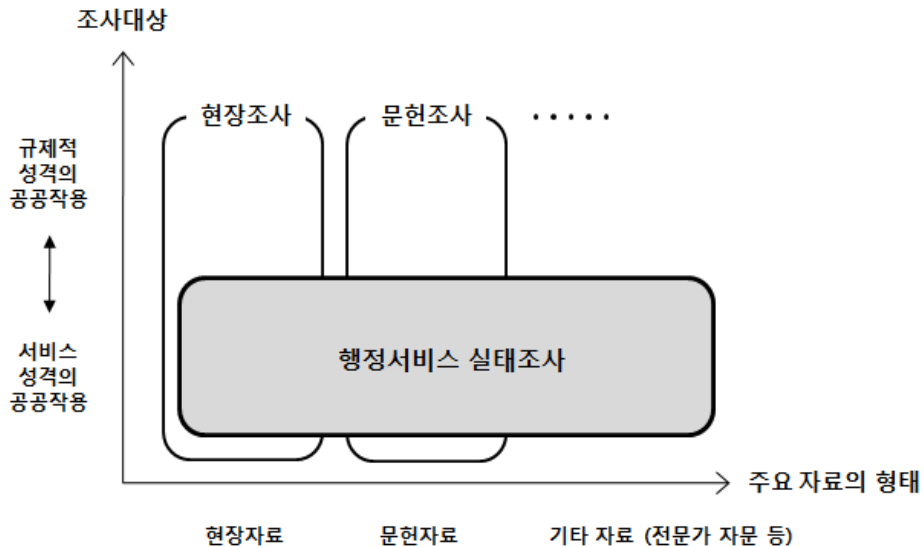
2015. 7. 26일자; 조계완,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될까?」, 『한겨레』, 2015. 1. 9일자; 김영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중복’에 ‘돈 먹는 하마’ 될라」, 『제주도민일보』, 2015. 3. 10일자; 최재필, 「1조 6000억 쏟아붓는 LG창조경제혁신센터 개점휴업 ... “이대론 안된다”」, 『미디어잇』, 2015. 3. 20일자; 노정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표류, 왜? 등 떠밀려 나선 롯데,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묵 유통’?」, 『부산일보』, 2015. 1. 28; 김동훈·이충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치적센터!」, 『뉴스토마토』, 2015. 6. 2일자.

II. 조사분석 체계

1. 조사 방법론

- 본 보고서는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방식으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상황에 따라 ‘센터’로 표기할 수 있음)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과제를 조사함
- 행정서비스 실태조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성격의 공공활동을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행정서비스의 현황·성과·한계 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행정서비스 실태조사의 대상과 자료 형태



- 여기서 행정서비스는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공부문이 예산이나 기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 재화, 공간 등을 총칭함
- 실태조사는 특정 방법론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임
- 조사 항목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 각 센터가 출범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창업 지원 서비스의 성과·문제점·개선과제임

[표 1]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태조사 항목

구분		실태조사 항목
현황	운영기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근거규정, 의사결정 기구 등
	투입자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공간 등
	주요기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성과	정량적 성과	창업 멘토링 횟수, 보육기업 수 등
문제점 및 개선과제	내부 기반	운영기반과 투입자원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운영 과정	주요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
	외부 환경	창업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은 센터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센터 운영에 투입된 자원, 센터의 주요 기능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운영 성과는 정량적(quantitative) 성과를 중심으로 조사함
 - 창업역량 강화, 지역사회 창업 생태계 개선과 같은 정성적(qualitative) 성과는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측정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창

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이후 1년 미만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성적 성과 측정은 센터가 성숙기로 접어든 이후로 미루고, 현 시점에서는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내부 기반, 센터의 운영 과정, 창업 일반에 관한 법·제도적 환경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내부 기반과 센터의 운영 과정 측면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선과제를 살펴보는 것임

- 법·제도적 환경의 측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유의 문제점이 아니라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선과제를 살펴보는 것임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물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한 문제점과 함께 창업 일반에 관한 법·제도적 환경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임

◆ 단, 법·제도적 환경 측면의 개선과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만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지역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등 모든 관련기관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자료조사 방법은 현장방문과 문헌조사를 병행함

○ 현장방문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센터장, 운영팀장, 창업보육팀장, 보육기업 임직원 등을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문헌조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관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유관기관의 문헌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온라인자료 등을 분석하는 방식을 병행함
- 자료의 정리 과정에서 특정 센터의 명칭은 가급적 표기하지 않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의사결정 거버넌스(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의 결정을 따르고, 이들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있는 미래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에 센터의 명칭을 직접 언급할 경우 의사결정 거버넌스와 미래부를 의식한 각 센터 담당자들은 심층 면접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본 실태조사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미래부 및 각 센터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만 센터의 명칭을 표기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센터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함

2. 조사 대상 및 일정

- 조사 대상은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임
 - 경북 포항에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주)포스코 주도로 운영되는 민간 자율형 센터이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다른 센터와 운영기반과 체계가 달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17개 센터 중에서 15개 센터는 현장방문하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장 방문 없이 국회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청권 방문 당시 기관 내부 일정으로 담당자 심층 면접이 불가능하여 문헌자료 조사로 대체함

[표 2] 현장방문 대상 기관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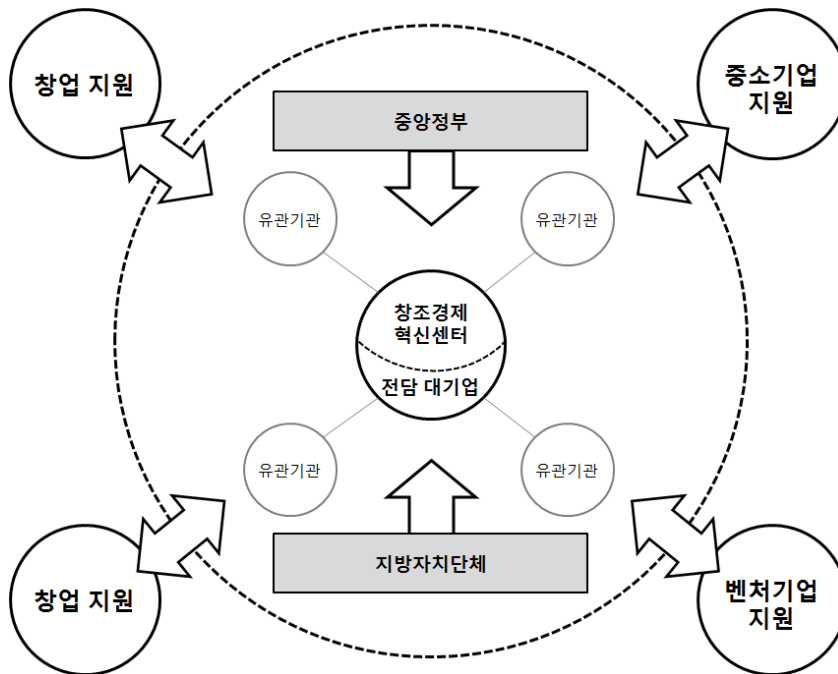
구분	일시	비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8. 31(월)	국회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회의 진행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10. 20(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10. 21(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10. 22(목)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15. 10. 27(화)	
충청권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015. 10. 29(목)	충북 (대전 센터는 내부 사정으로 생략)
	~ 30(금)	충남, 세종
호남권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전북, 전남)	2015. 11. 3(화)	전남
	~ 4(수)	광주, 전북
영남권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015. 11. 11(수)	울산, 부산, 경남
	~ 12(목)	경북, 대구

Ⅲ.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1. 개념 및 설립 경과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남 대기업과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창조경제의 실천 기관임⁴⁾

[그림 2]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념도



4)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타운! 온라인에서 전국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대한다.』, 2014. 1. 10일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비전(vision)은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연계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임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목표는 우수 인재가 머무는 지역 경제시스템 구축,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간 유기적 생태계 구축, 지자체·지역유관기관·지역주민의 역량 결집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임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대 기능은 창업 허브, 지역 혁신의 거점, 협력성장의 엔진임

[그림 3]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비전·목표·기능

비전	지역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연계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 지역경제 발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재가 상주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간 유기적 생태계 구축 ▶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역량 결집 		
주요 기능	창업 허브	지역 혁신 거점	협력성장의 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공간·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주체간 소통과 협업 지원 • 창업촉진,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단계별 창업지원 •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혁신기관간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연계 • 지역 창조경제 전략 수립 참여 • 파일럿 프로젝트 등 지역 창조경제사업 발굴·기획 • 연계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및 원스톱 서비스 창구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 혁신역량 보완 • 우수기술 매입, 지분투자, M&A 등을 통한 기업생태계 활성화 • 사업모델 개발, 마케팅, 판로확보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직접적으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내외적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창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임
-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Apple)·구글(Google),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우버(Uber)·에어비앤비(airbnb), 한국 ICT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NAVER)·카카오(Kakao)·엔씨소프트(NC Soft) 등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창업⁵⁾ 기업임
- 이러한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멘토링·투자·판로개척과 같은 지원 활동이 적절하게 지원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짐⁶⁾
 -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성장의 정체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임
- 이에 정부는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균등한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성공 경험을 창업의 조기 정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음⁷⁾
- 2013년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가칭)민관 창조경제기획단’을 제안했고,

5) 창업, 벤처(venture), 스타트업(start-up) 등 창업 관련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그 의미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스타트업이 보다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인 ‘창업’을 사용함

6) 세계적인 ICT 창업 지역인 미국의 실리콘벨리, 최근 하드웨어 창업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심천은 공통적으로 창업 생태계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7)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시·도마다 실리콘벨리와 유사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조경제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12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설치의 근거 규정인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

- 2014년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출범되었고, 2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소개씩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 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됨
- 이러한 노력 끝에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대 출범을 시작으로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되었음
- 최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2013년 3월 26일 개소)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2013년 4월 28일 개소)가 지자체 중심으로 개소되었으나, 정부가 각 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을 연계시키기로 결정한 이후에 대구센터와 대전센터가 각각 삼성과 SK를 전담 대기업으로 하여 확대 재출범하였음
- 그 결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14.9.15), 대전(‘14.10.10), 전북(‘14.11.24), 경북(‘14.12.17), 광주(‘15.1.27), 충북(‘15.2.4), 부산(‘15.3.16), 경기(‘15.3.30), 경남(‘15.4.9), 강원(‘15.5.11), 충남(‘15.5.22), 전남(‘15.6.2), 제주(‘15.6.26), 세종(‘15.6.30), 울산(‘15.7.15), 인천(‘15.7.22) 순서로 개소됨
- 17개 센터 중 2014년 개소한 센터는 대구·대전·전북·경북 등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센터는 2015년에 개소하여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임
- 17개 센터 중 제주센터를 제외한 전국 16개 센터는 각각 1개의 대기업을 전담 대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제주센터는 2개의 대기업을 전담 대기업으로 두고 있음

[그림 4]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담 대기업 현황



주 1.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세부 내용은 <부록 1> 참조

2. 제주센터는 현재 카카오(Kakao)와 아모레퍼시픽을 전담 대기업으로 두고 있음

자료 :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최종검색일 : 2015. 11. 20), <<http://ccei.creativekorea.or.kr>>

2. 운영 기반

가. 근거 법률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법」 제43조와 관련 규정,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민간 비영리 재단 법인임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공공기관의 인력을 파견받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관 운영 예산을 보조받음
 - 이 규정은 2013년 12월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개정되었음
 - 제1차 개정(시행 2014.11.19.)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처 표기 순서를 교육부, 미래부 순서로 변경한 것 이외의 개정 사항 없음
 - 제2차 개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재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었음
 - 제3차 개정에서 문화 영역이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도입되었음
 - 이 규정은 현재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

8) 「민법」상 재단법인 관련 규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연혁

구분	제정 (시행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4호	2차 개정 (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20호	현행 (시행 2015.3.24.) 대통령령 제26155호	
주요 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창조경제위원회 폐지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사항 일부 변경 ○ 문화 분야 창조경제 활성화 업무를 위하여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1명 증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며 범정부적인(법국가적인)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차 개정에서 “법국가적인”으로 바뀜)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설치 ② 협의회는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을 협의·조정함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은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 2.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벤처기업협회의 장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은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교육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장		
	② 협의회는 협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참여시킬 수 있음		② 협의회는 협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창조경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③ 협의회의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함			
	④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맡음		④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맡으며, 문화 관련 안건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간사가 됨	
⑤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隔月)로 개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창조경제 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창조경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삭제>		
민관합동 창조경제	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①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①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구분	제정 (시행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4호	2차 개정 (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20호	현행 (시행 2015.3.24.) 대통령령 제26155호
추진단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둘 수 있음	창조경제추진단을 둘 수 있음	
	② 추진단의 업무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기획 및 추진,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임	② 추진단의 업무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기획 및 추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및 <u>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u>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임	
	③ 추진단에는 단장 2명과 부단 장 1명을 둠	③ 추진단에는 단장 2명과 부 단장 1명을 둠	③ 추진단에는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 을 둠
	④ 단장은 창조경제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미래창조 과학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됨	④ 단장은 창조경제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 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이 지명하는 자가 됨	④ 단장은 창조경제 및 문화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 천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됨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위원회	<신설>	제17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혁신센 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 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2.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추천하는 대표와 임 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3.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창조경제 혁신센터	<신설>	제20조(창조경제혁신센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비영 리법인 중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② 업무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 그램 연계 및 총괄,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지역의 창조경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임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 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⑥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경비,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수 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 업 경비,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지역 창조경제 협의회	<신설>	제21조(지역창조경제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관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둘 수 있음 ② 위원은 시·도지사(또는 부단체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창조경 제 관련 유관기관의 장 등 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간사를 맡음 ⑧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나. 의사결정 거버넌스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운영·평가 등에 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창조경제협의회임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와 지역창조경제 협의회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소관함
- 이 외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창조경제 정책전반을 관장하는 거버넌스로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개별 조직은 청와대,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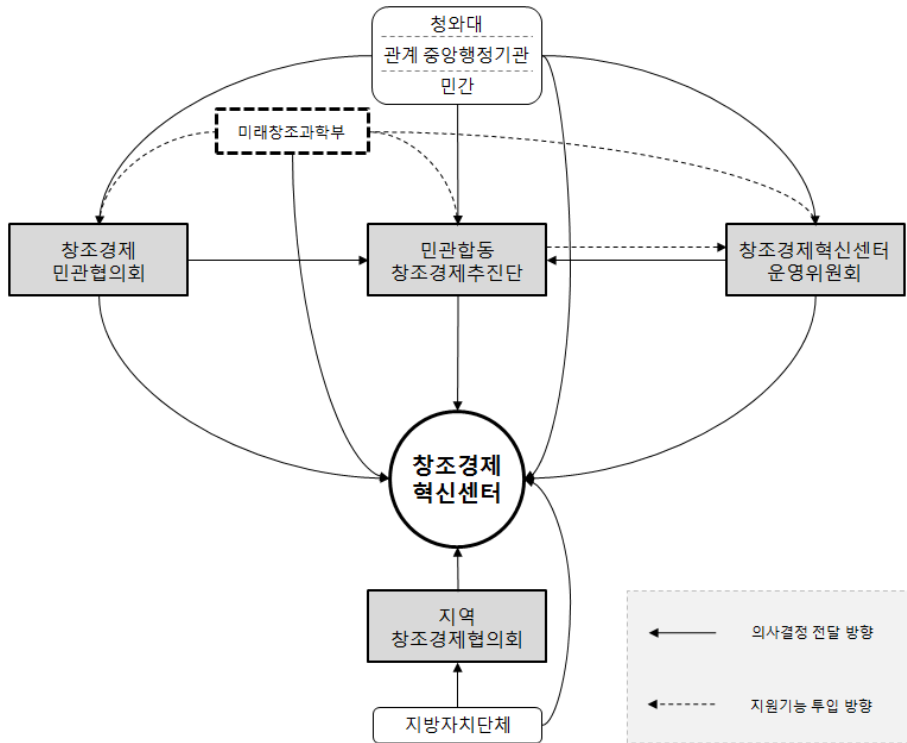
[표 4]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주요 의사결정 거버넌스 현황

구분	기능	참여 조직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 (미래부에 설치)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사항을 협의·조정 1.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민관 협력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사, 격월로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청와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장 [사무지원] 미래부 창조경제 총괄 부서(창조경제기획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구분	기능	참여 조직
<p>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미래부에 설치)</p>	<p>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조경제 관련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7.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p>※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재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p>	<p>[청외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p> <p>[중앙행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p> <p>[민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추천하는 대표와 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p> <p>[사무지원] 미래부장관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음</p>
<p>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미래부에 설치)</p>	<p>민관 협력 과제의 발굴과 추진,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기획 및 추진 2.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개선 3. 창조경제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의 기획·추진 4.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민간 프로그램의 연계 등 창조경제타운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 	<p>[단장 3명] 민간 2명(전경련 상근부회장, 미디어 연출가) 정부 1명(기재부 고공단)</p> <p>[부단장 2명] [7개 팀] 기획조정팀, 혁신센터1·2팀, 벤처창업지원팀, 혁신프로젝트팀, 문화창조융합벨트팀, 융복합프로젝트개발팀</p> <p>[운영 인력] 정부(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와 민간(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p>
<p>지역 창조경제 협의회 (관할 시·도에 설치)</p>	<p>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관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 (세부 운영 사항은 시·도지사가 결정함)</p>	<p>[지자체]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p> <p>[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p> <p>[유관기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창조경제 관련 유관기관의 장</p> <p>[위촉위원] 창조경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p>

[그림 5]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버넌스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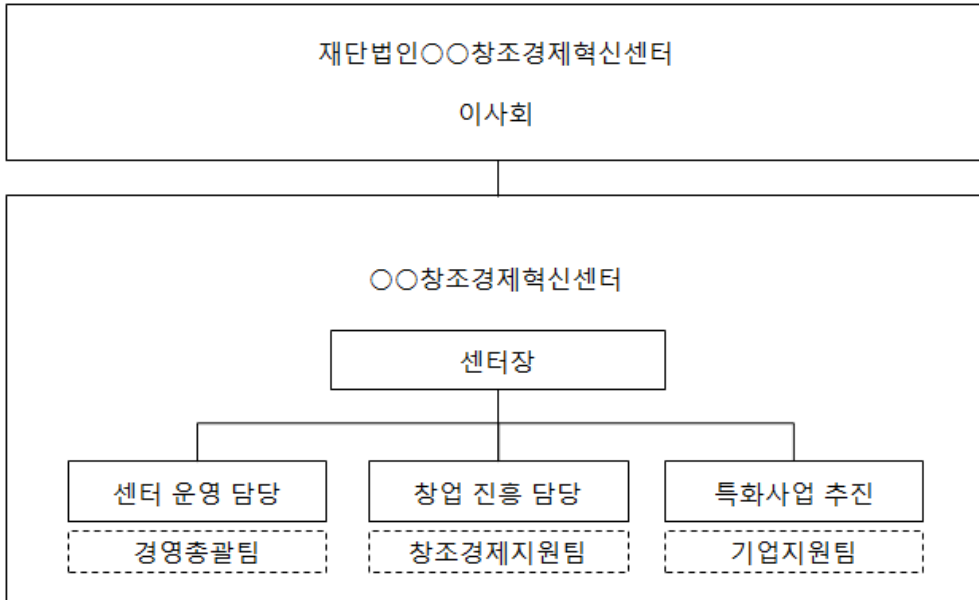
3. 투입 자원⁹⁾

가. 조직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 소관(창조경제기획국 담당)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됨
- 정부가 2014년 10월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이 때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비영리)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미래부 소속 재단법인(비영리)의 설립 기준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센터는 센터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10만원~100만원 정도의 소액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함
- 센터 설립은 일반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센터를 개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부 조직은 각 센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센터장 이하 3~4개 정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팀의 숫자와 명칭·기능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①센터 운영, ②창업 진흥, ③특화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팀은 공통적으로 존재함

9)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세부적인 조직, 인력, 예산 및 펀드, 공간, 전담 대기업 현황 등은 <부록 1> 참조

[그림 6] 일반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도



나. 인력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력은 상근 인력,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활용하는 외부 전문가 인력으로 구분됨
 - 단, 센터 내부의 ‘원스톱 서비스 존’에 근무하는 인력은 법무부 공익법무관(법무), 특허청 파견 변리사(특허),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직원(금융) 등이며, 이들은 항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만 나오기 때문에 센터 상근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 상근 인력은 센터의 내부 운영, 센터와 외부 기관과의 연계(네트워킹), 창업 보육(멘토링·컨설팅 등), 창업자와 외부 전문 멘토의 연결 등을 주관함
 - 상근 인력의 채용 방식은 자체 고용(센터장 포함),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

의 파견, 전담 대기업의 파견 등 3가지로 구성됨

-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원 소속 기관이 지급하며,¹⁰⁾ 센터는 자체 고용 인원에 대한 보수만 지급함
- 2015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평균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수준(센터 자체 고용 7명, 파견 8명)이며,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상근 인력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
- 수시로 활용하는 전문가 인력은 창업 관련 멘토링과 강연 등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가임
- 각 센터는 창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 창업 성공자, 기업인, 유관 기관 임직원, 전문 멘토 등으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멘토링·강연 등을 수행할 때 마다 적합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음

다. 예산 및 펀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사업 예산은 전액 정부와 소속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조성되며,¹¹⁾ 2015년 예산 규모는 센터당 평균 27.5억원임

10)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창조경제혁신센터)
-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 이 중에서 국비가 17.2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지방비는 10.3억원으로 38%임
 - 국비는 미래부의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기반 조성 사업’(97억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사업’(197억원)의 사업비로 조달되며,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취임사,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보조를 받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국가재정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 5년동안 조성할 창업펀드 규모는 센터당 평균 1,198억원임
- 창업펀드는 소관 지자체와 전담 대기업이 각각 출자하여 조성하며, 활용 방식은 투자펀드와 융자펀드로 구성됨
 -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전담 대기업이 조성하고 전문 운용사가 운영함
 - 융자펀드는 센터가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시중 은행의 융자를 보증·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2015년 7월 기준으로 펀드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한 전국 16개 센터의 창업펀드 조성 계획 금액은 평균 1,198억원임
 - 이 중에서 투자펀드는 평균 448억원이고 융자펀드는 750억원임
- 예를 들어 전남센터의 경우 전담 대기업(GS)과 전라남도의 출자, 성장사다리펀드와 농식품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향후 5년간 투자펀드 400억원, 융자펀드 99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5]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펀드(투자·용자) 조성 계획(예시)

구분	명칭	지원대상	규모 (계획)	지원형태
투자	창조경제혁신 펀드	전남 농수산·관광·바이오화학 벤처	400억원	지분투자 (펀드 운용사가 해당 기 업에 지분투자)
	농식품창업 아이디어 펀드	전국의 농수산 벤처		
	바이오화학 펀드	전남 바이오화학 벤처		
용자	친환경농수산 펀드	전남 친환경농수산 기업	900억원	용자지원·보증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용자를 지원·보증)
	창조기술 펀드	전남 창업·중소·벤처기업		

라. 공간·물리적 인프라

- 대부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사정에 따라 시제품 제작과 같이 설비가 필요한 작업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함
- 정부가 2014년 10월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여건에 맞게 센터 입지를 선정하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희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무실, 교류 공간, 기업상담 공간은 필수적으로 조성하고, 센터 사정과 지역 여건에 따라 랩(Lab: laboratory) 공간 등은 기존 시설(시제품제작터, 창업공작소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3D프린터, 사무용 집기, 각종 장비 등 센터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 비용은 각 센터의 운영 예산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 설립시 전담 대기업이 구축하여 센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음
- 센터 출입과 인프라 이용은 대부분 무료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센터의 상담·회의 공간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보육공간은 입주기업을 배려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기도 함
- 센터가 위치해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관리상 주의가 필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인프라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음

마. 전담 대기업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서 제주센터를 제외한 16개 센터는 각각 1개의 대기업을 전담 대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제주센터는 제2센터 출범 이후 2개의 전담 대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전략 산업, 주요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지역 연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별 전담 대기업을 결정하였음
- 전담 대기업은 축적된 역량·전문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에 활용하고 예비 창업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성장 트랙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기존 산업의 한계 극복, 마케팅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은 공동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표 6]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대기업 연계 근거

지역	전담 대기업	근거
서울	CJ	-문화산업을 창조경제로 육성하는 문화융성 대표기업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위한 관광콘텐츠 조성

지역	전담 대기업	근거
부산	롯데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통·관광 전문기업 -영화·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으로 영화도시 부산과 시너지
대구	삼성	-첨단 소재·IT 부문 선도기업, 모바일 세계 1위 기업 -대구시 전략산업 기여 가능 기업
인천	한진	-항공·해운 등 물류 전문기업으로 물류 중심지 인천 거점 -인천공항 및 인하대 창업지원센터 관련 기업
광주	현대자동차	-광주 기아차 공장 중심의 자동차 관련 활동 지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부문 선도 기업
대전	SK	-SK 연구소를 중심으로 ICT 부문 사업역량과 출연연의 기술자산을 결합 -벤처·창업 육성 지원 기업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 중심의 국내 대표적인 조선 기업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랜트·기계 기업
세종	SK	-정부 3.0 정보기술, 세종 U시티 구축 주요기업 -ICT 중심의 국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 기업
경기	KT	-한국판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등 벤처·창업 육성지역 -IT중심의 벤처창업부문 멘토링 및 지원 기업
강원	네이버	-춘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소재 포털 기업 -IT서비스를 통해 강원(춘천 등)문화콘텐츠 업그레이드
충북	LG	-오송 생명과학 및 청주 생활건강 중심기업 -전자정보, 바이오 부문 선도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충남	한화	-글로벌 태양광에너지 선도기업 -ICT 중심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업
전북	효성	-국내 탄소섬유 대표 생산기업으로 지자체 연계 -전주 탄소클러스터 핵심기업
전남	GS	-여천 석유화학단지 대표기업 -미래 에너지, 건설부문 선도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경북	삼성	-구미 중심 스마트기기 생산 기업 -경북산학융합지구 연계 주요기업
경남	두산	-창원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발전·기계설비 제작 기업 -경남 창원 중공업 등 6곳 사업장으로 두산벨트 구축
제주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제주 중심(본사 소재)의 인터넷 포털 기업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미디어 플랫폼 기업

주 :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10월 27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센터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으로 진입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지자체·참여기업 공동TFT’구성』, 2014. 9. 4일자. 수정

바. 지역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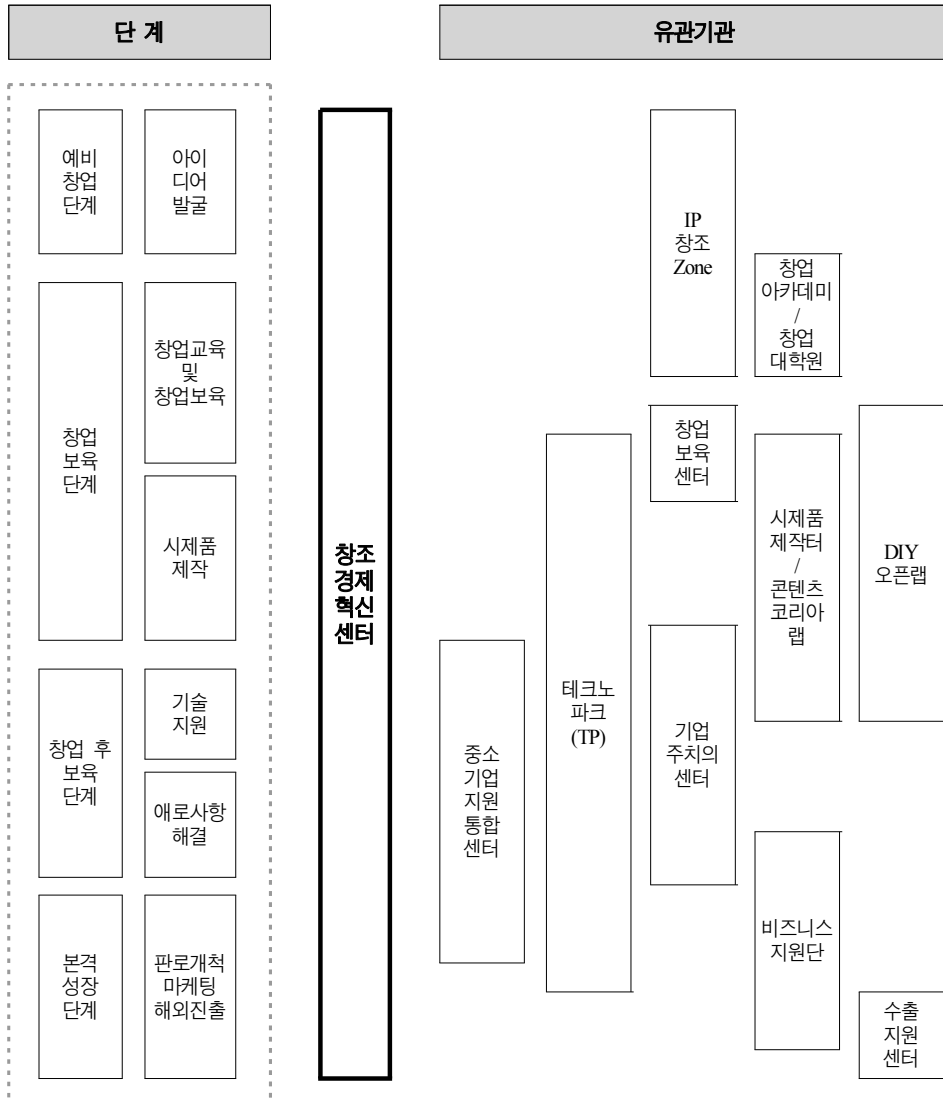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이전에 이미 중앙 및 각 지역에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기업주치의센터, 테크노파크, IP 창조 Zone, 창업아카데미, 시제품제작터, 비즈니스지원단, 콘텐츠코리아랩 등 다양한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었음

[표 7] 창업 지원 관련 지역 유관기관

기관	소관부처	특징 및 주요기능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현,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http://www.smehappy.re.kr	미래창조과학부	40여개 출연(연) 및 전문기관 공동의 중소기업지원체계
기업주치의센터 (현,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www.bizdoctor.or.kr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테크노파크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하여 인적·물적 기술자원을 집적화한 산업기술단지
IP 창조 Zone http://ipczone.ripco.org	특허청	각 지역의 RIPC(지역지식재산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
창업아카데미 http://www.startup.go.kr	중소기업청	대학생,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 실시
시제품제작터 (각 지방중기청 소재)		시제품제작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 및 셀프제작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원
비즈니스지원단 http://link.bizinfo.go.kr/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1,800여명)
창업보육센터 http://www.bi.go.kr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경영지도 등을 제공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공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 등을 목표로 중소기업 진흥 사업 추진
콘텐츠코리아랩 https://www.ckl.or.kr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네트워킹, 펀딩, 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 예산과 인력 등 자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장에서는 창업 지원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 유관기관들이 중요한 협력 자원임

[그림 7] 창업 지원 단계별 유관기관 현황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일부수정

4. 주요 기능¹²⁾

가. 창업 허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창업 허브를 지향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D캠프, 마루180, 요즈마, 구글캠퍼스 등 민간 창업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센터 내·외부의 전문 멘토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법무·특허 분야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계시키고, 센터 자체의 보육과 지원 기능을 통해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영역별로 칸막이식 창업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이 사업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지원 사항을 패키지화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8] 창업 허브를 구성하는 주요 기능

구분	내용
교육, 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창업 저변 교육,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제공 ▪ 창업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보육 대상자(기업) 선발

1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은 개념적으로 창업 허브, 지역혁신 거점, 협력성장 엔진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이 3대 기능들은 실제 창업 지원 현장에서 서로 명확한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구분	내용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가 및 과거 창업 유경험자로 구성된 멘토와 연결
원스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금융 종합상담, 사업화 준비자금 지원, R&D 개발자금 지원, 창업보증,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Start-up 펀드 등 단계별·맞춤형 금융지원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무 및 특허 상담
보육 및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전 등을 통해 보육기업을 선발하여, 각 센터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육·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적용 보육기업은 센터내 입주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 초기 창업자금 지원 단, 보육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정의 공모전을 통과하는 등 제도/프로그램에 짜여진 보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멘토링, 원스톱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
인프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 프린터, 네트워크 공간 등의 창업 인프라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제품 개발 환경 제공, 시제품 제작 설비 지원
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분석 지원, 판로 개척 지원, 국내외 데모데이(Demo Day)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투자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투자자(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를 초청해 투자 유치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기능을 활용하면 창업이 보다 쉬워지고, 창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시제품을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기존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 자비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설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센터를 이용할 경우 사무공간 비용을 포함한 각종 창업 비용을 줄이고 무료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그 부담이 감소함

나. 지역 혁신 거점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부처의 지역 조직과 지역 내부 유관기관들의 창업 지원 기능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결집시키는 지역 혁신의 거점을 지향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유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가장 적합한 창업 지원 정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육성 대상 예비 창업자와 기업을 선정하여 센터 자체의 역량으로 보육하거나, 연계 기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멘토로 지정함
 - 이 때 지자체·테크노파크 등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상주인력이 ‘혁신지원 코디네이터’로서 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기관과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표 9] 지역 혁신 거점을 위한 주요 연계 기능

구분	내용
센터와 대기업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은 역량·강점 등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센터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함 ▪ 대기업은 예비 창업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혁신주체들과 함께 구축·제공하고, 센터를 통해 기업이 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적극 참여함
센터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상생 관계를 형성(아이디어 또는 기술에 대한 대기업 직접매입, 지분투자, 판매량에 따른 이익배분 등의 방식) ▪ 기존 대·중소기업,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상호간의 협업 생태계 조성
센터를 통한 정부 지원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동반성장노력으로 간주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함(동반성장지수 평가시 반영, 국가 R&D 참여시 가점, 공공 조달시 우대 검토 등)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센터를 통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활성화 ▪ 대기업, 지자체 주도로 창조경제단지 조성 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검토함 ▪ 멘토링·창업 교육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센터 구축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공간을 마련함
센터와 유관기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파크, 중기지원 통합센터 등 지역 내부의 유관기관들과 기능 연계·조정 강화 ▪ 지역 지원사업 중 연계가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여 지원 풀(pool)을 구성하고, “Fast-track” 적용 방안을 마련함 ▪ 혁신센터는 지역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아 육성대상 예비창업자나 기업을 선정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멘토로 지정함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혁신 거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지역별 과제의 추진을 지원·총괄하고, 지역창조경제협의회는 지역내 유관기관의 연계·협력 활성화 및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교류회는 센터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다. 협력성장 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창업 지원 기관의 미흡한 역량을 보완하고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육성의 효과를 높이는 협력성장의 엔진을 지향함
- 전담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상품개발, 판로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
- 뿐만 아니라 전담 대기업은 창업·벤처기업의 우수 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지분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함으로써 창업·기술개발 의욕을 전반적으로 고

취시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유관기관의 역량 중에서 미흡한 점을 전담 대기업을 활용하여 보완하기 때문에 지역 창업생태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중소기업, 지자체, 지원기관의 요구 사항을 전담 대기업에 투입하는 창구 및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표 10] 전담 대기업의 역할 유형 예시

유형	예시
유형 1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추진 • 예를 들어 기존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신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유형 2 자원 및 네트워크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미사용 특허를 벤처·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하여 해외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등 지원
유형 3 기관간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중견기업)와 지역 혁신기업, 연구기관간 상생협력 • 예를 들어 대기업은 협력사와 센터를 연결할 전문가를 배치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참여 후, 협력사에 우선구매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유형 4 지역 전략산업 공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예를 들어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기업의 전략이 연계되는 분야에서 상생협력 프로젝트(사업화 공동연구, 벤처 투자 등)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IV.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1. 운영의 성과

가. 주요 성과

-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창업기업 보육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¹³⁾
- 2015년 7월 까지 250여개 창업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채용, 매출,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음
- 이 외에도 전담 대기업과 연계하여 125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해 기술지원, 자금지원, 사업모델·상품 개발, 판로지원 활동 등을 전개했음

[표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 현황(2015. 7. 17 기준)

구분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보육				중소·벤처기업(업력 7년 이상) 혁신지원			
	기업수 (개)	신규채용 (명)	매출 (억원)	투자 (억원)	기업수 (개)	기술지원 (건)	자금지원 (건/억원)	판로지원 (건)
내용	250	75	171.4	299	125	57	9 / 116.25	7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5.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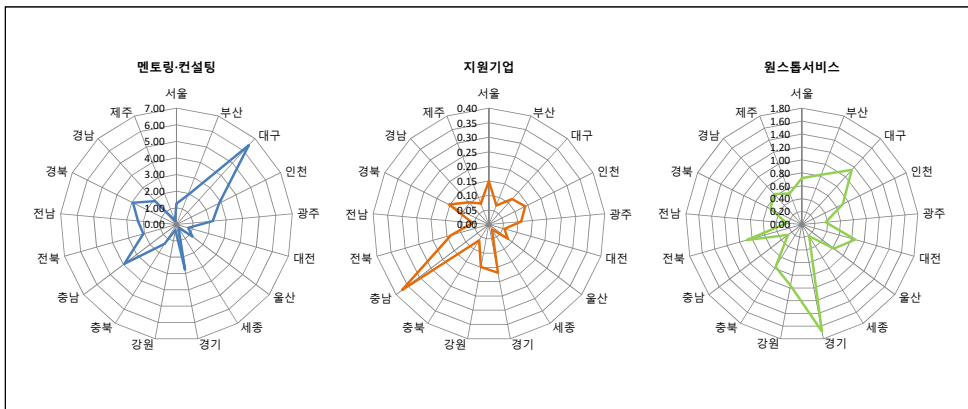
- 이러한 활동을 각 센터별로 개소일 이후 최근(2015년 11월 28일)까지의 1일 평균 성과로 분석해 본 결과 센터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남
- 멘토링·컨설팅은 대구센터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13)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5. 7. 27

- 기업지원은 충남센터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원스톱서비스 이용은 경기센터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림 8]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1일 평균 운영 실적

(단위 : 건, 개)



자료 : 아래 [표 12]를 방사형 표(radar chart)로 재가공함

[표 12]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운영 성과

(단위: 건, 개)

지역	멘토링 컨설팅 (건)		지원기업 [입주+지역] (개)		원스톱 서비스 상담 [금융+법률+특허] (건)		
	개소 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개소 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개소 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전국 17개	합계	9,604	34.74	489	2.03	3,150	11.94
	평균	565	2.04	29	0.12	185	0.70
서울	168	1.25	20	0.15	96	0.72	
부산	488	1.90	18	0.07	212	0.82	
대구	2,836	6.46	52	0.12	502	1.14	
인천	371	2.88	18	0.14	91	0.71	

지역	멘토링 컨설팅 (건)		지원기업 [입주+지역] (개)		원스톱 서비스 상담 [금융+법률+특허] (건)	
	개소 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개소 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개소 이후 현재까지	1일 평균
광주	670	2.20	34	0.11	113	0.37
대전	303	0.73	23	0.06	354	0.86
울산	163	1.20	11	0.08	84	0.62
세종	37	0.25	3	0.02	32	0.21
경기	672	2.77	41	0.17	409	1.68
강원	69	0.34	30	0.15	193	0.96
충북	404	1.36	19	0.06	230	0.77
충남	747	3.93	71	0.37	51	0.27
전북	765	2.07	50	0.14	325	0.88
전남	416	2.32	10	0.06	42	0.23
경북	1,011	2.92	53	0.15	188	0.54
경남	444	1.91	24	0.10	148	0.64
제주	40	0.26	12	0.08	80	0.52

주 : 1일 평균은 각 센터별 운영 성과를 개소일 이후 기준일(2015년 11월 28일)까지 단순 경과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재가공(2015년 11월 28일 기준)

- 최근에는 각 센터가 조성한 투자펀드의 집행도 본격화 되고 있음¹⁴⁾
 -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향후 5년간 총 8,174억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8일 기준으로 총 3,575억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이 중에서 359억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됨

14)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 2015. 9. 11일자.

나. 성과 사례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례 중에서 창업 허브(센터 자체 역량 활용), 혁신 거점(유관 기관의 역량 활용), 협력성장 엔진(전담 대기업의 역량 활용) 기능이 잘 나타나는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함
- 창업기업 보육 사례¹⁵⁾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체 역량을 활용한 창업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센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지역혁신거점의 기능도 보여주는 사례

- 담당 센터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보육 기업 : (주)대공 / 맞춤형 가방(백팩) 제작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기 이전 상황
 - 2015년 ‘준규’라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함
 - 제품 제작, 거래처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음 : (대표 인터뷰 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참조) “조립식 백팩 등 아이디어 상품을 구상했지만 뜻대로 사업을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본과 정보의 부족이었다.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았고 자금도 부족했다. 제품 제작에서부터 거래처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게 없었다. 모르는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다른 기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제품이 나와도 거래처를 뚫는게 굉장히 어려웠다”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내용
 - 2015년 200: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C-Lab 벤처창업 공모전’에 합격하여 대구센터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C-Lab 1기의 지원을 받음
 - C-Lab 선정 초기 창업자금 2천만원 지원
 - 사무공간(보육공간) 무상제공, 투자유치 기회 제공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롯데그룹 유통망 연계 추진
 - 신용보증기금과 MOU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대경본부의 ‘퍼스트 펡귌기업’으로 선정
 -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사무공간 제공(Post C-Lab)

15) <https://ccei.creativekorea.or.kr/case/caseDetail.do?storyNum=3&storyList=story>

- C-펀드에서 추가창업자금 1.7억원 지원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이후의 주요 성과
 - 1:1 삼성 멘토링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 추가 인재 채용으로 온라인 시장 확대
 - 2015년 7월 서울 인사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
 - 다양한 홍보 및 판로개척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증가 예상

□ 중소·벤처기업 혁신지원 사례16)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 대기업의 계열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협력성장엔진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

- 담당 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보육 기업 : KPT / 화장품제조회사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기 이전 상황
 - 2005년 회사 설립
 - KPT는 세계 최초로 구슬모양에 액체상태 화장품을 넣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내용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LG생활건강과 매칭시켜줌
 - (주)LG생활건강은 KPT와 제품개발을 공동 착수하고, 4개월만에 “진주환”이라는 제품을 완성함
 - (주)LG생활건강은 이 제품의 소비자권장사용량을 통상적인 그램·스푼이 아니라 ‘한알, 두알’로 쉽고 편리하게 바꾸었고, 제품의 모양의 시각적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구슬의 크기를 기존의 4mm에서 7~10mm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KPT의 제품을 2015년 5월 상하이 화장품 박람회에 출품함
 - (주)LG생활건강은 자사 로드샵의 1,200개 매장을 통해 해당 상품 판매를 개시함

16) <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buk/case/caseDetail.do?storyNum=22&storyList=story>

2. 주요 문제점

가. 내부 기반의 문제점

(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 비영리 재단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수익 창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가 필수적임
-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변경되거나 대통령이 교체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폐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임
 -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¹⁷⁾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2018년 이후에는 현 정부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

17)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받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폐지하여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와 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영속성 불안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의 영속성 불안은 자체 고용된 인력의 신분 불안을 초래하고 해당 직원들의 직무 만족과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¹⁸⁾
 - 창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 혁신 지원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염려하는 창업자, 외부의 협력 기관, 멘토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기피하기도 함¹⁹⁾

(2)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조정·협력 기능 미흡

- 최근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의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함
 -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²⁰⁾ 혹은 창조경제 추진 실적을 올리기 위해²¹⁾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려는 경우가 많음

18) 인터뷰 결과 상당수의 직원들이 근거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의 존립 자체도 불확실해 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

19) 인터뷰 결과 일부 창업지원 기관(엑셀러레이터)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적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0) 인터뷰 결과 센터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인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계획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쉽지만, 중앙에서 하달된 사업인 경우에는 새롭게 관련 기관과 담당자를 찾아내고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 때 원칙적으로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같은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여러 기관의 협력 사항을 조정하여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배정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들은 중앙의 사업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수직 하달할 뿐이며, 그 이후에는 각 센터가 알아서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역할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한된 인원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정책 조정을 하느라 업무 부담이 큼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같은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중앙의 사업을 수행 기관별로 조정·배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은 협력사업을 해야 할 기관과 담당자를 찾아내고, 이들로부터 업무·예산·공간 배분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부족한 센터 인력으로 이러한 조정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각 센터의 고유 미션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창조경제 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21) 인터뷰 결과 센터 초기에 일부 기관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해당 기관의 창조경제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센터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서 현재의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일선 센터가 창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음

(3)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활용 곤란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원 신분 보장이 불확실하여 우수한 인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지위 불안정은 센터 직원의 신분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우수 인재가 지원을 기피함
- 대부분의 센터들은 부족한 고급 인력을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파견인력 위주의 인력 활용은 장기적으로 센터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인력들은 대부분 1~2년 정도 지나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고 센터장 임기도 2년이기 때문에 2년정도 지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노하우를 축적·전수하기 어려움
 - 파견 인력은 원 소속 기관에 따라 일하는 방식, 직급, 보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센터 직원간 화학적 융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²²⁾
 - 대부분의 센터가 파견 인력으로 팀장급 직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센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파견 인력은 원 소속 기관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센터별 고유성을 정립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2) 인터뷰 결과 센터 직원들의 출신이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융화되기 힘든 구조라고 함. 또한 상대적으로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센터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4) 예산 운용의 자율성 제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경직적임
 - 국가·지자체는 각 센터의 기관 운영과 사업 진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엄격하게 보조금을 집행·관리해야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장에서는 창업 보육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할 경우 실시간 대응이 어렵거나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센터의 예산 활용 주체가 지자체 파견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지만, 대기업 파견 직원이나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에는 보조금 활용의 자율성이 낮아서 불편함을 호소함²³⁾
- 창업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펀드의 집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센터가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각 센터별로 고유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펀드를 조성했지만, 이 펀드를 집행하는 것은 독자적인 펀드 운용사임

23) 인터뷰 결과 특히 민간 출신 직원들이 예산 활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보였음. 예를 들어 창업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펀드 운용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기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펀드를 조성한 목적과는 다르게 펀드가 집행될 우려가 있음
 -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하게 되므로 도전적인 투자를 위해 창업펀드를 구축한 센터의 의도와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펀드 운용사에 해당 창업기업을 추천하기 보다는 전담 대기업에게 우수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전담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별도의 상생기금을 출자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이 금액을 해당 창업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적으로 활용되기도 함

(5) 공간 운영의 합리성 저하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부 센터는 건물 활용의 자율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함
 -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임차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들은 센터 내부의 공간 배치나 안내판 설치와 같은 크고 작은 일상적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심야 시간 이후에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곳에 소재한 센터는 창업보육 활동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게 됨

- 이 외에도 일부 센터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음
 - 예를 들어, A센터는 월 3,500만원(1년간 4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해당 센터 연간 운영 예산 28.3억원의 15%이며, 창업기업 1곳당 2천만원씩 나누어주면 총 21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

나. 운영상 문제점

(1) 센터의 기능 정립 미흡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 유사한 것이 많아 센터 별로 고유성이 부족함
 - 대부분의 센터들이 개소일자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에 선행 센터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구성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수도권 민간 창업보육기관의 노하우를 획일적으로 각 시·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주입한 측면도 있음
 - 각 지역별로 경제 여건, 창업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이 각 센터의 기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예를 들어 도 지역에 소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농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로 찾아오는 수요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입주·보육하는 수도권 민간 창업보육기관 모델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멘토링과 같은 주요 기능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 각 센터는 테크노파크 재직자 등을 멘토 그룹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이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센터간 멘토 역량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용자에 대한 홍보 부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해당 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많음
 - 각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학생, 직장인, 농업인, 중소기업관광산업 종사자, 전통시장 상인들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센터를 이용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음
- 센터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홍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특히 도 지역 센터의 경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센터를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이 획일적이어서 각 센터별로 고유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려움
- 그 결과 센터가 원하는 목표집단(target group)이 지원 정보를 접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창업시켜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일반 창업을 상담하는 민원인들만 찾아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²⁴⁾

24) 인터뷰 결과 A센터는 한동안 아이디어 창업과 무관한 60세 이상 노인의 일반창업 상담 비율이 40% 이상이었다고 함

다. 법·제도적 환경의 문제점²⁵⁾

(1) 창업·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 창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법·제도가 기술혁신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광주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자동차 상용화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상용 수소 복합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수소자동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임시허가,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의 적합성인증과 같이 융합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특례가 있지만, 부처 소관주의가 강하고 법률상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출시가 가능한(positive system) 국내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례가 순조롭게 작동되기 어려움

(2) 혁신 제품의 판로 제한

-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주저하거나, 사업화 이후에 창업 기업이 고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25) 법·제도적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유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물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창업 일반에 관한 법·제도적 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함

- 혁신제품의 판로가 제한되는 원인 중에서 법·제도 혹은 관행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큼
 - 제품의 판매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생산설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시제품의 제작까지만 지원받은 창업·벤처기업이 본격적인 생산 설비까지 갖추어 납품 계약을 성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내 납품·조달 체계는 ‘타 기관 납품 실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납품 실적이 전무한 창조기업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3) 성급한 성과평가로 인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동 위축

-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획함에 따라 각 센터는 평가를 의식하여 창업 지원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빠른 시간 내에 정량적인 측정이 용이한 강연·멘토링·컨설팅·시제품제작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때 성과평가 결과가 기관의 예산이나 인센티브로 연결될 경우, 각 센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챙기게 될 것이므로 센터의 순수한 창업, 중소·벤처 지원 기능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각 센터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사회의 경제상황이 다르고, 출범일의 차이로 인한 기능 안정화 수준도 다른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음

- 예를 들어 창업 역량이 높고 아이디어 창업이 용이한 ICT 분야를 지원하는 경기·대전센터의 활동 실적과, 창업 기반이 약하고 대부분의 산업 구조가 농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종센터를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울산·창원·구미와 같은 제조업 기반 도시들은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의 ‘주문-납품’ 구조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 수요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개인 창업 수요가 높은 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활동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정량지표로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면 자칫 센터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V. 향후 과제

1. 운영 기반 안정화

(1)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균형적 인식 정립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치적 배경과 기능적 필요성을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창업 지원이 필요했다는 점, 창업 지원 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지역 창업 지원기관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험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적 필요성도 상당히 높았음
-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야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일반 국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창조경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함
- 구체적인 개념화는 창조경제를 정치적 수사(rhetoric)로 보는 불신을 줄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성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영속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의 법률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테크노파크 사업자에 대한 예산 출연을 규정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창업보육센터의 지정과 지원을 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과학기술혁신 기관의 지정과 지원을 위해 최근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을 참고할 수 있음²⁶⁾
-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고, 입법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거나, 별도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정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부 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은 비영리 독립 재단법인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창업 지원 활동과 전담 대기업과의 연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26)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조정·협력 기능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같은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각 센터가 보다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앙에서 하달 받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들과 업무·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센터와 유관기관이 각각 담당할 업무를 조정해서 하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일선 기관들이 상호간에 업무·예산을 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실을 감안한 사업 결정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각 센터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상향식(bottom-up)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너지가 예상되는 거버넌스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활용 기반 조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여 센터 직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

을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원 구성이 파견 인력 중심에서 채용 인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센터 전문성과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견인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채용 인력의 비중과 지위를 높여 센터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센터 인력의 동질성 강화를 통한 인적 유대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인력 활용은 기본적으로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보수·복지 등에 관해서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5) 예산 운용의 자율성 확보

- 국가·지자체가 각 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운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센터의 예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²⁷⁾
- 이 외에도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센터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기업공개(IPO), M&A, 기술거래 등으로 이

27)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남. 보조금은 시설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경비는 출연금을 활용할 때 자율성이 높음

윤이 발생할 경우 센터가 투자이익을 취득·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터가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²⁸⁾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 기능과 각 센터의 창업펀드를 분리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창업펀드는 각 지자체와 전담 대기업이 출자해서 조성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임
 - 센터당 평균 1,198억원의 창업펀드는 센터의 재량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터 역량과 연결해서 인식할 경우, 센터의 기능과 규모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흔히 센터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1,000억원이 모두 투자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 따라서 센터의 창업·보육 기능과 창업펀드는 분리해서 인식해야 함

(6)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초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능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센터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입지를 재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설·공간을 자율적으로 배치하여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8)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 이 때, 각 센터가 처한 상황적 맥락을 감안하여 접근성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과 대도시의 경우 젊은 창업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각지에서 농식품벤처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자가용 접근성이 더 중요함

2. 운영 합리화

(1) 각 센터별 고유 기능 정립 및 자체 역량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허브, 지역 혁신 거점, 협력성장 엔진과 같은 기능을 공통적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전략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으로 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획일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말고, 각 센터가 사업·인력·예산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하고, 선행 기관의 노하우를 후행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센터의 멘토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센터가 자체 고용하거나, 전문가 풀(pool)로 확보하고 있는 멘토들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교육을 제공하여 멘토링의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사회 내부의 창업 희망자, 해당 분야에 대한 전국의 창업 희망자, 지역 유관기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기공과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의 목표 고객에게 센터의 홍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채널과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 보편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전담 대기업의 홍보 역량을 활용하여 알리고, 해당 센터의 주력 사업은 개별 센터와 지자체의 홍보 역량을 활용하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²⁹⁾

(1) 창업·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 창조경제의 성과물이 기존의 낡은 법·제도적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창조경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중에는 소관 지자체, 미래부, 기재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창조경제 최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29) 앞서 제시된 개선과제들과 달리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의사결정 거버넌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역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모든 구성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해당함

논의되어야 함

-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조치들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각 센터별 중점사업 중 일부는 산업 기반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창업·혁신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시범사업, 실증단지 조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다부처 협력 사항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을 통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수 있음

(2)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 확대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전담 대기업 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개발된 신상품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판로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신제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신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하여 신제품의 기능과 안정성을 점검한다면 민간기업과 일반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탄소섬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섬유로 제작된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 가스통을 전북 전주·군산·익산에 시범적으로 보급했고, 해당 제품의 안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상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혁신상품 인증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혁신상품 인증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여 'BIG 마크'를 부여하고, 롯데그룹의 유통망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방식임
- 향후 혁신상품 인증제를 발전시켜 우수한 창조경제 신상품이 공공조달 시장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3) 각 센터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성과평가 실시

- 각 센터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필요하지만,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센터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필요함
- 센터별로 수행하는 사업의 차이를 고려하여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센터별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기능 안정화가 필요한 출범 1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임을 감안한다면, 센터가 성과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출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성과평가를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과 지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성과평가 결과는 특성이 서로 다른 센터간 비교 목적이 아니라 각 센터 내부의 자체적인 성장모형 발굴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VI. 결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특히 지역사회의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적 필요성과 고유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도권에 비해 경제의 기반과 활력이 약하고 전통산업의 혁신 의지와 가능성이 낮은 지역사회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순기능을 함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음
 - 2015년 7월 기준 총 250개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이 이루어졌고 이 기업들로부터 신규채용 7명, 매출액 171.4억원, 투자유치 299억원이 발생했음
 - 125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이 이루어졌고, 세부적으로 기술지원 57건, 자금지원 9건(116.25억원), 판로지원 75건이 있었음
 - 투자펀드의 조성과 집행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5년 9월 8일 기준으로 총 3,575억원이 조성되었고, 359억원이 집행되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존의 지역 유관 기관들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적 고유성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
 - 각 지역사회에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고 오래된 유관기관들이 있지만, 이 기관들은 어느 정도 창업모델이 정립된 분야, 운영체계가 갖추어진 창업 중반 이후의 기업을 해당 유관기관의 자체 자원으로 육성함

- 이와 달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형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해서 창업·사업화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센터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 유관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을 제기한 여론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초기 불완전성을 과잉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의 유관기관들과 기능 중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모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지역 유관기관과 기능 중복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유관기관들이 기존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발굴하고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은 유관기관들과 공동 수행하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의 기능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많을수록 열심히 활동하는 센터로 평가하지만, 실제 출범 초기에는 입주 기업을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농수산업·소매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보육기업을 센터에 입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입주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임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놓고도 단순히 전시용으로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펀드의 운용은 센터와 독립적인 민간 펀드 운용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펀드 투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임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는 있지만 창업 생태계가 빈약하고 성장의 혁신 동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창

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 내는 전반적인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재정 지원 근거 강화를 통한 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보
 -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여 센터의 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행 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하거나,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정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조정·협력 기능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연계·협력 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달된 사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같은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각 센터와 유관기관간 기능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동시에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일선 센터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중앙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너지가 예상되는 거버넌스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활용 기반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직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직원의 인력 구성이 파견 인력 중심에서 채용 인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운영 재원의 다변화와 예산 자율성 확보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센터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입지 선정
 - 입지 선정 기준을 센터의 상황별로 다변화시키고 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입지를 재선정하게 함으로써 향후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설·공간을 쉽게 배치하여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센터별로 고유 기능을 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
 - 장기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고유한 창조경제 플랫폼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하고, 선행 기관의 노하우를 후행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사회 내부의 창업 희망자, 지역사회 유관기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기능과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목표 고객에게 센터의 홍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 창조경제의 성과물이 기존의 낡은 법·제도의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창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조치들도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논의되어야 함
- 신규 개발 제품·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 확대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전담 대기업 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개발된 신상품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판로를 개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우수 신상품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현행 ‘혁신상품 인증제’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각 센터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성과평가 실시
 - 정부는 창조경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과 지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다음, 이를 각 센터별 사업 성숙도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센터가 출범 1년 미만으로 기능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 센터가 평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성과평가를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센터간 비교 목적이 아니라 각 센터 내부에서 성장모형 발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4. 10.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2013. 6. 4.
- 김동욱, 『행정서비스 통합분석평가모형 개발연구』,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4. 11.
- 김동훈·이충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치적센터!」, 『뉴스토마토』, 2015. 6. 2 일자.
- 김영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중복’에 ‘돈 먹는 하마’ 될라」, 『제주도민일보』, 2015. 3. 10일자.
- 노정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표류, 왜?] 등 떠밀려 나선 롯데, 창조경제 아이 템이 ‘어묵 유통’?」, 『부산일보』, 2015. 1. 28.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5. 7. 27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 2015. 9. 10일자.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지자체-참여기업 공동TFT’구성』, 2014. 9. 4일자.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타운! 온라인에서 전국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대한다』, 2014. 1. 10일자.
- 조계완,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될까?」, 『한겨레』, 2015. 1. 9일자.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지역 발전 기대 속 두 달 넘도록 입주업체 ‘0’인 곳도」, 『중앙일보』, 2015. 7. 26일자.
- 채상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시행정’ 표본되나」, 『이데일리』, 2015. 8. 6일자.
- 최재필, 「1조 6000억 쏟아붓는 LG창조경제혁신센터 개점휴업 ... “이대론 안된다”」, 『미디어잇』, 2015. 3. 20일자.

[NARS-----

[부록] 1.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지역	주요 내용			
서울	비전	민간 창업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전국 창업생태계 활성화		
	개요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KT빌딩 1층, 外		
		개소일 : '15. 7.17.	전담기업 : CJ	주력산업 : 문화, 도시라이프
		인 력 : 14명(채용 11, 파견 3) '15년 예산 : 24.8억원 (국비 14.8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미정 (투자펀드 : 미정, 용자보증 : 미정)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창업네트워크의 거점 - 민간 창업기관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입주보육공간 신규 확보(40개 예비창업팀 공간 지원) 추진 ○ 창업교육과정, 경진대회 등 운영 - 실전창업 교과과정, 모의 클라우드펀딩 과정 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청춘창업실 : 총 10개팀 선발 및 입주보육 중(9월~3개월간), 담임멘토제 등 운영 - 창조경제 투자 퍼레이드 : 엔젤클럽 협의회와 함께 운영 : 8월말 현재 2회 83명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푸드테크 산업 : 식문화 산업과 IT가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준비 중 - 패션 산업 : 패션 디자이너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및 제작·유통 지원 			
부산	비전	글로벌 창의문화·상품의 밸류업과 시장진출의 관문		
	개요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4층		
		개소일 : '15. 3. 16.	전담기업 : 롯데	주력산업 : 유통, IoT, 영화
		인 력 : 22명(채용 11, 파견 11) '15년 예산 : 27.1억원 (국비 17.1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2,300억원 (투자펀드 : 500억원, 용자보증 : 1,8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혁신 - 유통기업 롯데의 상품성 제고노하우와 유통채널을 활용, 부산을 혁신상품의 가치 제고와 시장진출 관문(Gateway)으로 육성 - 홈쇼핑 7회, 백화점 등 판매 행사 8회 등 지역 특산물 및 입주기업 판로지원 ○ 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하여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 부산 3개 영화관에서 예술영화 상영 지원(독립영화 21편, 603회 상영) ○ IoT 기술 상용화 - 부산의 IoT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과 연계한 7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IoT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영화영상 시나리오 공모전 : 4개 작품 선정하여 총1.6억원 상금 지급, 우수작은 부산제작사 매칭, 시나리오 개발 및 롯데엔터테인먼트 직접투자, 촬영 지원 - 제1회 사물인터넷(IoT) 기술 공모전 : 총 5개팀 선발하여 입주보육 예정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판로지원 : 홈쇼핑 판매 8회, 백화점등 판매 행사 8회 개최로 47억원 매출 지원 - 지역 혁신상품 판로를 위한 소싱박람회 및 유통MD교류회 개최 / 총2회, 123개업체 참여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영화·영상 : 예술영화전용관(롯데시네마) 3개관 41편, 2039회 상영 - 글로벌 스마트시티 : 실증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지역	주요 내용			
대구	비전	창의 아이디어의 글로벌 사업 메카 실현		
	개요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3·13층		
		개소일 : '14. 9.15.	전담기업 : 삼성	주력산업 : IT, 전자, 섬유
		인 력 : 17명(채용 8, 파견 9) '15년 예산 : 35.7억원 (국비 21.6억, 지방비 14.1억)		
	투자액 : 300억원 (투자펀드 : 300억원, 융자보증 : 0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b(Creative Lab) 운영 -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 센터에 입주시켜 6개월간 집중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금지원, 판로 마케팅 등 사업화 숲 과정 지원 / 1기 16팀 졸업 / 2기 18팀 운영 ○ C-Star PITCHING 개최 - 자신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투자자 등에게 설명하는 Pitching 행사(오디션) 개최 ○ C-IP 운영 : 삼성 등록특허 38,000여건 개방(6.15) ○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 착수(구 제일모직 부지, 기공식 '15.2.10)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C-랩 공모전 2기 : 18개팀 선발 및 입주보육 중(7월, 6개월간), CCEI캠프 참여 등 지원 중 / (실적) 18개팀 법인설립, 18개팀 C-펀드 각 2천만원 투자유치 - C-Academy : 디자인스쿨, 3D게임 & 가상현실 전문가, 실전창업스쿨 : 55회/1,231명 수강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C-IP : 삼성 등록특허 3만 8천 건 개방(6.15)업체 방문 상담 22건, 설명회 개최 2회 - 벤처파트너스데이 : 지역 중소기업 IR 설명회/8회 개최, 10개 기업 10.5억원 투자 지원 - 투자지원 등 : (주성진포머(30억원), 티피에스(15억원) 투자유치 및 삼성 협력업체 등록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C-패션 : 제일모직과 섬유·패션분야의 지역내 협력업체 발굴(*20년 100개) - C-오토 : 삼성자동차 계열사, 해외기업 등 대구 중견기업과의 협업프로그램 마련(9월) 			
	동북아 물류중심지 인천! 스마트 물류로 창조경제의 튼튼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개요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7층, 外	개소일 : '15. 7. 22.	전담기업 : 한진
인천	사업 내용	인 력 : 13명(채용 6, 파견 7) '15년 예산 : 21억원 (국비 15억, 지방비 6억)		
		투자액 : 1,590억원 (투자펀드 : 650억원, 융자보증 : 9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물류의 거점으로 조성 - 물류와 IT 결합, 항공정비, 자동차 소재·부품 분야 강소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 수출물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 중소·벤처, 국내 농축수산 지원 ○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 한중 스타트업 교류, 인상 프로젝트,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스마트물류벤처창업공모전 : 10개팀 선발하여 시상금 및 입주보육, 전문가 컨설팅 등 제공 예정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신사업 창출지원단 : 자동차 및 항공기 엔진정비기술 융합 관련 공동장비센터 네트워크 및 전문 멘토 풀 구축 (9월 완료)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인상 프로젝트 : e-커머스 창업교육(50명) 및 온라인 쇼핑몰 교육(35명) - 대중국 수출 :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 4개 제품개발 및 중국 위생허가 인증 지원 - 스마트 물류 : 관련 IoT 분야 민간 액셀레이터 '스파크 랩' 입주 준비 중 			

지역	주요 내용			
광주	비전	생활에서 미래산업까지 창조 혁신의 중심		
	개요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S7 동, 外		
		개소일 : '15. 1. 27.	전담기업 : 현대자동차	주력산업 :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인 력 : 12명(채용 7, 파견 5) '15년 예산 : 27.7억원 (국비 17.7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1,875억원 (투자펀드 : 675억원, 융자보증 : 1,2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수소 관련 기술·벤처 발굴 육성(창업지원) - 자동차 관련 미사용 특허 제공, 자동차 전문 테스트베드 및 입주 공간 제공 등 - 융합스테이션(2기) 구축, 수소펀드(150억원) 운영,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술벤처 발굴·육성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차 전·후방산업 육성 ○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제시 - 전통시장에 디자인·문화를 융합한 '창조적 전통시장 육성' (승정역전매일시장) - ICT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생활창업 지원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자동차 벤처창업 공모전 : 10개팀 선발 및 입주보육 중(4월, 12개월간) / (실적) 3개팀 17억원 투자유치, 특허출원 10건, 1개팀 5.8천만원 매출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스마트팩토리 : 년 40개 업체 지원 / 20개 완료, 20개 지원 중 - 서민생활플랫폼 : 상권분석, 고객관리 등 영업지원서비스 모바일앱 시범 운영 중 / 총374건 - 투자지원 : 중소기업혁신보증펀드 3개사 4억원 융자, 금융존 통한 4개 기업 15.2억원 융자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수소연료전지 : 수소연료전지 버스 운행, 융합스테이션 1단계 실증사업 협약 및 구축 		
대전	비전	창조경제의 리더, 혁신적 선도모델 제시(대전형 실리콘 밸리 구축)		
	개요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나노융합기술원 9층, 外		
		개소일 : '14.10.10.	전담기업 : SK	주력산업 : 기술사업화
		인 력 : 25명(채용10, 파견15) '15년 예산 : 35.5억원 (국비 20.5억, 지방비 15.0억) 투자액 : 500억원 (투자펀드 : 350억원, 융자보증 : 15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벤처스타, 글로벌벤처스타 발굴 육성 - 지역내 벤처·연구소기업을 발굴, 입주공간 무료제공, 전담 멘토링 지원 : 창업초기 자금(팀별 20백만원), 기술개발 자금(팀별 최대 2억원) 지원 등 ○ 창조아카데미(창의 인재 양성), T아카데미(S/W 인재 육성 및 스마트 창업 활성화) 운영 ○ 온라인 '기술사업화 Market Place' 구축 - 출연연, 대학, SK 관계사 등이 보유한 기술을 DB로 구축하여 온라인 개방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Dream Venture Star공모전 2기(10개팀) / 1기 10개팀 졸업 : 총매출 19.6억원, 총투자유치 33.8억원, 총31명 신규채용 - Global Venture Star 공모전 : 3개팀 선발('14.12월)하여 각 1천만원 지원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기술사업화 : 온라인 '기술사업화 Market Place' 구축 및 출연연·SK그룹 및 대덕특구 유망 기술 7,893건 DB구축, 기술사업화 연계 3건 - 파이낸셜데이 : 매월 운영 중 / (실적) 보증 및 융자 32개사 총 96.9억원 지원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디자인 씽킹 :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법론(22회/3,275명) - T아카데미 : 'IoT시대의 혁신' 등 모바일 전문가 과정 (29개/3,181명) - 창조아카데미 : ICT 트렌드(핀테크) 분석과정 등 (17개/ 949명) 		

지역	주요 내용			
울산	비전	대한민국 조선해양플랜트 및 의료자동화 산업의 요람		
	개요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5호관 2층, 외		
		개소일 : '15. 7.15.	전담기업 : 현대중공업	주력산업 : 조선, 의료기기
		인 력 : 9명(채용 4, 파견 5) '15년 예산 : 27.5억원 (국비 17.5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1,620억원 (투자펀드 : 500억원, 융자보증 : 1,12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선박 예코쉽 개발(빅3 조선사-기업-대학 공동), ICT 및 SW 기술 융합형 스마트쉽 개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지원 ○ 첨단 의료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자동화 포털 구축, 로봇활용 의료 서비스를 패키지하여 기업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 민간 창업보육과 센터간 연계 및 3D 프린팅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루 180 원격창업지원존 운영, 3D 프린팅 라이브러리 정보 공유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현대중공업 기술공모전 : 접수 중(~12월) / 10개팀 선발하여 입주공간(6개월간) 제공, 시상금 및 자금지원(최대 2억원), 현대중공업연계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예정 - B-Camp : 초기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 대상 비즈니스 모델링 캠프 운영(9월~10월)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등 : 우수 중소기업에 특화동반성장펀드 지원,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 특화산업 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자동화 : 환자이동로봇 필드테스트(2개 병원), 보행재활로봇 병원보급 및 종양치료로봇 동물시험(9월) - 3D프린팅 : 3D Techshop 구축(전 공정 지원 시설) 및 시제품 제작(4건) 			
세종	비전	농업과 과학기술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스마트 농업의 메카”		
	개요	소재지 : 세종시 조치원읍 대침로 32 (구, 세종시 교육청) 1·2층		
		개소일 : '15. 6.30.	전담기업 : SK	주력산업 : ICT, 스마트농업
		인 력 : 11명(채용 5, 파견 6) '15년 예산 : 23.4억원 (국비 13.4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200억원 (투자펀드 : 200억원, 융자보증 : 0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접목 창조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표준화, 신 농사직설 시범운영(스마트 정보 플랫폼 구축) ○ 도농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 두레농장 운영(스마트팜+스마트 로컬푸드+현장테스트베드) ○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단지외와 협업, 농업+과학기술 융합 추진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미래농업 ICT/IoT 벤처 창업 및 아이디어 공모전 : 7개팀 선발하여 입주공간(10개월간) 제공, 자금지원(최대 4천만원), SKT 동반성장프로그램 지원 예정 ○ 특화산업 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마을 : 스마트 팜 설치(100농가), 지능형 영상보안(50개소), 태양광 발전 설치(17개 마을 회관, 3kw급) - 도농상생 실현 :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준비 			

지역	주요 내용			
경기	비전	IT 융합 신산업 육성·글로벌 진출 허브		
	개요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1·5층		
		개소일 : '15. 3. 30.	전담기업 : KT	주력산업 : 게임·핀테크 산업
		인 력 : 15명(채용 6, 파견 9) '15년 예산 : 27.1억원 (국비 17.1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1,050억원 (투자펀드 : 550억원, 융자보증 : 5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해외 창업투자기관 등을 연결, 혁신벤처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 오렌지랩 인터내셔널 데모데이(3개팀), 오렌지 도쿄 데모데이(3개팀) 등 참가 지원 ○ 게임·IoT·핀테크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와 문화, 금융, 바이오기술 융합으로 차세대 글로벌 게임, IoT, 핀테크 산업 육성 - 핀테크·IoT 관련 13개 기업 창업 지원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hamp Lab 2기 : 12개팀 선발 및 입주(IoT 분야 7개팀, 게임분야 5개팀) * 1기 13개팀 선발 중 9개팀 입주보육(6개월간), 초기자금 천만원 지급, 테스트베드 지원 - spark@판교 : 판교지역 스타트업, VC 등 전문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9월~)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계 : 중소기업이 KT와 공동사업 및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운영 - 기기IoT얼라이언스 : 기기IoT협력지원센터(판교)와 지역 IoT협력기업 연계 지원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 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진출 지원 : MWC상하이 참가(4개팀), 쉐클 게임스کم 참가(4개팀) 등 - IoT : 중국심천 연계 IoT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현지액셀러레이팅 협력) - 핀테크 : 핀테크멘토단(10명) 운영 중/핀테크 Demo-Day(3회) 6개기업 금융사와 1대1 매칭 			
강원	비전	창조경제의 마르지 않는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빛·보듬관 2층		
		개소일 : '15. 5.11.	전담기업 : 네이버	주력산업 : 빅데이터
		인 력 : 13명(채용 6, 파견 7) '15년 예산 : 28.7억원 (국비 18.7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1,050억원 (투자펀드 : 350억원, 융자보증 : 7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싱 활용 신산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혁신 지원 등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 - 빅데이터 인력양성, 빅데이터 기반 사업플랫폼, 공공데이터 인프라 연계 등 ○ 관광, 헬스케어기기, 스마트농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산업 활성화, 작물 생육정보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생태계 조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벤처창업 공모전 : 접수 중(매월) / 입상팀 상금지원, 네이버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 추천 예정 -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 한림대 과정 개설 (9월~)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개척 : 지역 소상공인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지원(138개사 완료, 79개사 추가 선정) - e-커머스 교육지원 : 487명 완료, 연내 1,000명까지 확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산업 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 창업클럽 1기 모집(8월), 창업 공모전(9월) '빅데이터 포털' 구축(12월) - 클라우드 소싱 : 창조경제원정대(평창 5지역 완료), K-CROWD 프로젝트('15년 20개) 			

지역	주요 내용			
충북	비전	화장품·뷰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의 혁신거점		
	개요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개소일 : '15. 2. 4.	전담기업 : LG	주력산업 : 바이오, 뷰티
		인 력 : 19명(채용 9, 파견 10) '15년 예산 : 27.4억원 (국비 17.6억, 지방비 9.8억)		
		투자액 : 1,500억원 (투자펀드 : 400억원, 융자보증 : 1,1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eauty 글로벌화 - 생명과학과 화장품·뷰티를 접목한 신사업 창출 지원 - 도내 화장품 회사 전수조사하여 10개 유망업체 선정, LG생활건강과 공동 브랜드 개발 ○ 친환경 에너지사업 - '제로 에너지 하우스'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의 조속한 산업화 지원 (LG에서 지원) ○ IP 서포트 : 대기업과 출연연의 특허를 공유하는 특허지원창구 구축 / 특허 공개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 : 30개팀 선발완료 및 최종 심사 중 / 선발팀에는 총 1.2억원 상금 제공과 상위 10개팀은 LG사업과 연계 사업화지원 예정 - LG아이디어마켓 : 8개 기업 LG 아이디어 컨설턴트 연계 창업지원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특허서포트존 :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중 / 43개사 컨설팅 완료 - 스마트팩토리 : 연내 10개 이상 구축 완료를 목표로 LG생산기술연구원 연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K-뷰티 : 화장품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4개사 컨소시엄 구성 (7개 원료기업과 LG생활건강이 공동으로 R&D, 마케팅 분야 협력 중) - 바이오벤처 : 바이오멘토단 구성(19명), 바이오펀드 100억원 조성 (5월), 바이오 테크페어 개최(33개 기관/기업 참여, 멘토링 17개사, IR 15개사 진행) 		
	충남	비전	창의·행복·성공 에너지의 나눔터, 충남!	
개요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KTX천안아산역사, 외		
		개소일 : '15. 5.22.	전담기업 : 한화	주력산업 : 태양광에너지
		인 력 : 12명(채용 6, 파견 6) '15년 예산 : 27.0억원 (국비 17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1,525억원 (투자펀드 : 425억원, 융자보증 : 1,1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 태양광 응용제품 차업지원, 태양광 실증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죽도) 실증사업 기공(7.3),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16년) ○ 무역존 운영 - 천안아산역사내에 무역존을 설치, 중소기업의 무역상담 등 해외진출을 지원 ○ 6차 산업 명품화 - 6차 산업 성공사례 명사초청 강연회, 6차산업 판매망 구축(갤러리아 아름드리 숲 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태양광응용제품 아이디어·사업화 공모전 : 20팀 선발하여 최대 천만원 상금지원, 입주 공간(6개월간) 제공, 부처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무역존 GEP 프로그램 : 방전가공기 공급계약 체결(터키向US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죽도) 실증사업 : 11월 완공, 클린에너지 캠퍼장조성 등('16년) -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협의회 구성(12월 완공) - 6차산업 경쟁력 제고 : 명품화 지원, 갤러리아 아름드리숲 운영(8개/2억 매출) 		

지역	주요 내용			
전북	비전	미래산업의 씨앗이 싹트는 전북		
	개요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1·2층, 외		
		개소일 : '14.11.24.	전담기업 : 효성	주력산업 : 탄소섬유
		인 력 : 13명(채용 7, 파견 6) '15년 예산 : 28.3억원 (국비 18.3억, 지방비 10억)		
		투자액 : 400억원 (투자펀드 :400억원, 융자보증 : 0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소재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특화 펀드 조성('15.8월),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건립('15.9월), 첨단재료 연구센터 구축('15.10월), 연내 탄소소재 산업 관련 20개 기업 창업 지원 추진 - '17년까지 총 5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10개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전북-효성 창업스타 1기 졸업, 2기(15개팀) 운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문화농생명 자산의 창조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 분야의 역량 있는 창업기업(가)를 발굴하여, 상품화 및 판로개척 집중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업체 선정하여 효성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판로개척 - 춘향전 등을 모티브로 한 게임 개발, 한지를 이용한 고급주텍 인테리어 등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효성 창업공모전 2기 15팀 선발하여 최대 1천만원 자금,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지원 : 복합소재 중간재(Axia Materials) 생산 중소기업에 10.5억원 직접투자 ○ 특화산업 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 탄소섬유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 건설(9월 준공) - 농생명·문화 : 떠먹는 치즈(7.6억원), 비늘추출 콜라겐(5억위안) 매출 달성 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 육성 분야 				
전남	비전	친환경 융합 농수산·관광과 바이오화학의 새 발견		
	개요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32 (구, GS칼텍스 교육원) 1~4층		
		개소일 : '15. 6. 2.	전담기업 : GS	주력산업 : 농수산식품
		인 력 : 14명(채용 6, 파견 8) '15년 예산 : 23.9억원 (국비 15.9억, 지방비 8억)		
		투자액 : 1,390억원 (투자펀드 : 400억원, 융자보증 : 99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 벤처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 특화 창업프로 그램, BT 융합기술형 식품벤처 육성, 스마트 농수산 생산기술벤처 육성 지원 (원재료 DB 구축, K-Food 벨트 구축, 무인기 활용 과학영농단지 시범사업 추진) ○ 청정 웰빙관광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지역 관광상품의 세계화 및 전남 6차 산업의 고품질화 추진 ○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화학 기반조성 및 벤처육성, 바이오 추출물 벤처 지원 등 ○ 농수산 식품벤처 마케팅·유통·판매 : 지역농수산식품 품평회 개최, K-Food 육성 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 연계 웰빙 관광상품 공모전 : 2~3개팀 선발하여 시상금 총1.2백만원, 우수관광상품 관광유행개발 지원, GS삼 입점이행보증금 및 창업지원 예정 - 창업아카데미 : 농수산벤처 분야 창업교육 준비 중 (10월~ 분기당 50명)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개척 등 : 국내외 홈쇼핑 방송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지원 : 3개기업 총2.9억원 매출 ○ 특화산업 육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관광 : GS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4개/3년간 50개목표) - 바이오화학 : (패각활용시범사업) 항균성 생활용품 및 미용 크림팩 개발·생산(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 육성 분야 	

지역	주요 내용			
경북	비전	경북제조업의 대도약, 대한민국 창조산단의 요람		
	개요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1·2층		
		개소일 : '14.12.17.	전담기업 : 삼성	주력산업 : IT, 스마트팩토리
		인 력 : 20명(채용 6, 파견 14) '15년 예산 : 33.8억원 (국비 18.8억, 지방비 15억)		
		투자액 : 600억원 (투자펀드 : 400억원, 지원 : 200억원)		
	사업 내용	○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고도화(스마트 팩토리)		
		- 노후 구미산업단지를 '제조업 3.0'이 구현되는 창조산업단지로 전환 지원		
		- 구미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년 중 100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현재 25 과제 완료, 90개 과제 진행중)		
	운영 실적	○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 풍부한 문화자산과 전통음식·고택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및 농업 6차 사업화 지원		
○ 창업지원 분야				
- 1회 대학생 창업경진대회(4개팀 선발), CCEI캠프(7월) 참여, 시제품제작 등 지원 중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스마트팩토리 : 147개 과정 확정 / (실적) 57개 완료, 90개 지원 중				
경남	비전	대한민국 메카트로닉스의 허브 '15. 4. 9.		
	개요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4층		
		개소일 : '15. 4. 9.	전담기업 : 두산	주력산업 : 기계장비
		인 력 : 14명(채용 8, 파견 6) '15년 예산 : 22.6억원 (국비 16.6억, 지방비 6억)		
		투자액 : 1,700억원 (투자펀드 : 400억원, 용자보증 : 1,300억원)		
	사업 내용	○ 제조업 혁신 3.0		
		- 경남의 전통적 기계산업 기반위에 ICT·대중소·청장년 융합으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는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 허브로 도약		
		○ 대체수자원 신성장 동력 육성		
	운영 실적	- 세계 최고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인재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대체수자원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화		
- 기존(금융법률특허) 기능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하여 원스톱 서비스의 시스템화를 구현하고, 추후 타 센터로 확산				
○ 창업지원 분야				
- I-Gen Challenge 공모전 1기 : 6개 창업기업 선정·입주보육 중, 최대 1천만원 자금 지원 등 / (실적) 1개팀 10억원 투자유치 · 17억 매출 · 두산협력업체 등록				
- I-Gen 에그데이 : 매월 창업 특강 실시 : 총 2회/80명 참석				
특화산업 육성 분야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투자지원 등 : (주)성산투스 10억원 투자유치 및 두산 협력업체 등록완료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메카트로닉스 : ICT 융합 아이디어 10개 중소기업 참여, 2개분야 4개업체 매칭				
- 항노화 바이오 : 9개 업체 판로개척, 8개사 부산센터 연계 홈쇼핑 입점 준비 중				

지역	주요 내용			
제주	비전	살고 싶고, 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정제주		
	개요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4층		
		개소일 : '15. 6.26.	전담기업 : 카카오/아모레퍼시픽	주력산업 : 문화, IT, 관광
		인 력 : 11명(채용 3, 파견 8) '15년 예산 :26.3억원 (국비 14.3억, 지방비 12억)		
	투자액 : 1,569억원 (투자펀드 : 669억원, 융자보증 : 900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허브의 섬 - 체류지원존 운영으로 체류형 스타트업 육성(글로벌 인재 육성)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위치기반서비스 인프라(Beacon) 구축, 관광창업사관학교 운영, K-Beauty 및 K-Food 사업화 연계형 6차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 ○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에너지 신산업 케스트베드, 추자도 에너지 자립성 시범사업 추진 등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분야 - 비콘기반 앱개발 경진대회 : 준비중 / 3개팀 선발하여 입주보증(6개월간), 비콘테스트랩 지원 예정 - J-Academy : 창업육성프로그램 운영 (9월~) ○ 벤처·중소기업 혁신지원 분야 - 동문재래시장 : 비콘 기반 스마트 관광 시범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단 구성 중 - 크라우드 펀딩 : 다음카카오 뉴스펀딩 서비스 활용한 창업제작 자금 지원 / 1개사 300만원 모집(500만원 목표) ○ 특화산업 육성 분야 - 비콘 기반 APP : 제주공항, 동문시장, 중문관광단지에 비콘 테스트존 설치 - 휴먼라이브러리 : 제주도내 혁신주체(분야별) 전문멘토 DB등록 중(30명/목표250명) 			

- 주 1) 인력 현황은 2015년 7월 기준이며, 센터장은 채용된 인력에 포함됨
 2) 투자펀드 및 융자보증은 향후 5년동안 조성·운영할 계획의 총량을 의미함
 3) 운영실적은 2015년 8월말 기준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5. 7. 2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 2015. 9. 10일자.

[부록] 2.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재지 및 주요 시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7. 17.	전담기업	CJ
소재지	<p>메인센터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KT빌딩 1층(1,058㎡) 인큐베이팅공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1,554㎡)</p>  <p>↑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KT빌딩) 입구 전경 (2015. 10. 20.)</p>		
주요시설	 <p>↳ 컨퍼런스 홀 (창업교육, 발표회 등)</p>  <p>회의실 ↳ (각종 회의, 멘토링, 컨설팅)</p> <p>※ 이미지 출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3. 16.	전담기업	롯데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3·4층(2,814㎡)		
			<p>⇩ 교육장 내부 (3D 프린터 가공물)</p> 
주요시설	<p>⇧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텀그린타워) 입구 전경 (2015. 11. 11.)</p>  <p>⇨ 스마트 스튜디오 (상품 및 홈쇼핑 촬영)</p>  <p>영상편집실 ⇨ (영화·영상 편집 및 그래픽 후반작업)</p> <p>※ 이미지 출처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15. 11. 20.)</p>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4. 9. 15.	전담기업	삼성전자
소재지	<p>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3·13층(1,482㎡)</p>  <p style="text-align: right;">⇩ C-Lab 입구</p>  <p>⇧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구무역회관) 입구 전경 (2015. 11. 12.)</p>		
주요시설	 <p style="text-align: right;">⇐ C-Lab (창업 아이디어 창출 공간)</p> <p style="text-align: center;">멘토링 룸 ⇨ (벤처1세대의 창업 멘토링 서비스)</p>  <p>※ 이미지 출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7. 22.	전담기업	한진
소재지	<p>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7층(전용 400평) 인천시 남구 석정로 229 JST건물 6·7층(전용 300평)</p>  <p style="text-align: right;">⇩ 컨퍼런스 룸 입구</p>  <p>⇧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송도 미추홀타워) 입구 전경 (2015. 10. 22.)</p>		
주요시설	 <p>⇐ 포토 스튜디오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용 스튜디오)</p> <p>아이디어 스페이스 ⇨ (교류·다목적 공간)</p>  <p>※ 이미지 출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1. 27.	전담기업	현대자동차
소재지	<p>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S7 동(1,19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4 KDB 생명빌딩 16층(1,091㎡)</p>  <p style="text-align: right;">⇩ 자동차 구조 모형</p>  <p>⇧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과학기술원 S7) 입구 전경 (2015. 10. 20.)</p>		
주요시설	 <p style="text-align: right;">⇨ 크리에이티브 존 (다목적 공간)</p>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 정보 검색 시스템 ⇨ (자동차 관련 특허, 논문 검색)</p>  <p>※ 이미지 출처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4. 10. 10.	전담기업	SK
소재지	<p>1센터(본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 9층(1,549㎡) 2센터(중앙로 캠퍼스)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사옥 4층(554㎡)</p>  <p>☞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 입구 전경 자료 : http://www.ipnomics.co.kr/?p=20683</p>		
주요시설	 <p>☞ 인큐베이팅 공간 (벤처·중소기업 사업화 지원)</p>  <p>챌린지 홀 ☞ (창업준비자의 협업공간)</p> <p>※ 이미지 출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7. 15.	전담기업	현대중공업
소재지	<p>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5호관 2층(총 1,221㎡)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4·6층(총 607㎡)</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창업특강 공간</p>  </div> </div> <p>⇧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벤처빌딩) 입구 전경 (2015. 11. 11.)</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마루180 버츄얼존 (서울 마루180과 화상 연계)</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스마트십 개발실 ⇨ (개발, 협업, 회의 공간)</p>  </div> <p>※ 이미지 출처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6. 30.	전담기업	SK
소재지	<p>세종시 조치원을 대첩로 32 (구, 세종시 교육청) 1·2층(총 819.9㎡)</p>  <p style="text-align: right;">↓ 1층 로비</p>  <p>↑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입구 전경 (2015. 11. 11.)</p>		
주요시설	 <p style="text-align: right;">↳ IoT 랩 (IoT 기기 테스트)</p> <p style="text-align: center;">창조마을관 ⇨ (스마트팜, 로컬푸드 등 창조마을 관련 소개)</p>  <p>※ 이미지 출처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3. 30.	전담기업	KT
소재지	<p>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1층·5층</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개발 공간 전경</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p>⇧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입구 전경 (2015. 11. 11.)</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right;"> <p>⇨ IoT DIY Lab (IoT 센서, 샘플 제품 체험)</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게임SW Lab ⇨ (오픈소스형 게임엔진 SW, 개발 프로그램 제공)</p> </div> <p>※ 이미지 출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5. 11	전담기업	네이버
소재지	<p>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빛·보듬관 2층(1267.18㎡)</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농작물 생육정보 수집 장치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p> </div> </div>  <p>⇧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대학교 한빛·보듬관) 입구 전경 (2015. 10. 27.)</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이동식 스마트 스튜디오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빅데이터 랩 ⇨ (빅데이터 분석 관련 시설)</p> <p>※ 이미지 출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2. 4.	전담기업	LG
소재지	<p>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1128.0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1층 로비</p>  </div> </div> <p>↑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구 전경 (2015. 10. 29.)</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right;"> <p>⇨ 원스톱 서비스 존 (금융, 법무, 특허, 컨설팅)</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멀티룸 ⇨ (해커톤, 강의, 회의 등)</p> </div>  </div> <p>※ 이미지 출처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5. 22.	전담기업	한화
소재지	<p>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KTX천안아산역사(495m²) 충남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생산관(858m²)</p>  <p style="text-align: right;">⇩ 교류·강연 공간</p>  <p>⇧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KTX천안아산역) 입구 전경 (2015. 10. 30.)</p>		
주요시설	 <p>⇐ 태양광 도서관 (태양에너지 관련 도서관)</p> <p style="text-align: center;">무역존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상담)</p>  <p>※ 이미지 출처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4. 11. 24.	전담기업	효성
소재지	<p>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1·2층(1,173㎡) 전북테크노파크 내 분원(793㎡)</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1층 로비</p>  </div> </div> <p>↑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서광빌딩) 입구 전경 (2015. 11. 4.)</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CINCU desk (다목적 회의 공간)</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 휴게실 ⇨ (휴식 및 네트워킹 공간)</p> </div>  </div> <p>※ 이미지 출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6. 2.	전담기업	GS
소재지	<p>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32 (구, GS칼텍스 교육원) 1~4층(2,37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1층 로비</p>  </div> </div> <p>↑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입구 전경 (2015. 11. 3.)</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right;"> <p>⇨ 스마트 스튜디오 (제품 디자인 및 포장라벨 제작)</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보육공간 ⇨</p> </div>  </div> <p>※ 이미지 출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4. 12. 17.	전담기업	삼성
소재지	<p>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1·2층(1,279.37㎡)</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스마트 팩토리 시설</p>  </div> </div> <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모바일융합센터) 입구 전경 (2015. 11. 12.)</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팩토리 랩 (노후 중소기업의 제조역량 혁신)</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margin-right: 20px;"> <p>⇨ 컬처 랩 ⇨ (고택문화, 종가음식 등 컬처 컨설팅)</p> </div>  </div> <p>※ 이미지 출처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4. 9.	전담기업	두산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4층(1,353㎡)		
			<p data-bbox="1039 656 1156 686">↓ 2층 로비</p>  <p data-bbox="364 1058 1071 1087">↑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입구 전경 (2015. 11. 11.)</p>
주요시설			<p data-bbox="792 1127 999 1185">←인큐베이팅 존 (창업기업 보육 공간)</p> 
	<p data-bbox="399 1499 756 1558">메이커 스페이스 존 ⇨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공간)</p>		<p data-bbox="364 1626 1035 1656">※ 이미지 출처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	2015. 6. 26.	전담기업	카카오/아모레퍼시픽
소재지	<p>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4층(1,92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796 615 1176 682"> <p>↓ 국회입법조사처·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영상회의 (2015. 8. 31.)</p> </div>  </div> <p>↑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벤처마루) 입구 전경 자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p>		
주요시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762 1128 976 1160"> <p>↔ J Space (열린 공간)</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data-bbox="368 1375 645 1599">  <p>↔ 다트 (8인용 회의공간)</p> </div> <div data-bbox="691 1497 891 1564"> <p>펀치 ⇨ (15인용 회의공간)</p> </div> <div data-bbox="905 1375 1176 1599">  </div> </div> <p>※ 이미지 출처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5. 11. 20.)</p>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40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5.12.28.	조 주은
제39호	미국 학교안전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 버지니아주(州)를 중심으로 -	2015.12.22.	조인식
제38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5.12.21.	이혜경
제37호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5.12.16.	원시연
제3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2015.10.7.	하혜영 권용훈
제35호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2014.12.31.	정준화
제34호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4.12.31.	조 주은
제33호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2014.9.19.	이현출 조규범
제32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4.	이수진 김보례
제31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2014.5.19.	원시연
제30호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2014.5.2.	정도영 조주현 서경택
제29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2.28.	손을춘
제28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 -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	2013.12.31.	조 주은
제27호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출입관리·시설관리·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2013.12.27.	조인식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6호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2013.12.13.	배민식
제25호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24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41호

발 간 일 2015년 12월 31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471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44-001358-14

© 국회입법조사처, 2015

현장조사보고서 제41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